

since 1986

SUNBO FAMILY

VISION 2015 |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2014년 1월 15일

vol. 120

World Best
SUNBO FAMILY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갑오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사랑, 축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고, 뜻하는 모든 소망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업장은 안전사고 없는 건강한 한 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단결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말띠해 중에서도 으뜸인 청말띠의 해라고 합니다. 청마는 서양에서 유니콘으로 불리울 만큼 귀한 동물이며, 역동성, 성공, 강인함 등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선보가족이 모두 합심하여 동료들과 함께 청마와 같은 힘찬 발걸음으로 조선 위기를 타파하고, 새로운 도약의 한 해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작년 구평1공장이 정상가동 되고 공장면적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공사가 많아 최대매출에 대한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계사년의 힘찬 항해를 시작하였으나 준비부족과 자만심으로 인해 고객에게 질책과 외면을 당한 결과 전사 매출성장은 전년대비 -7.5%, 2009년 공장가동 면적대비 매출은 -50% 수준으로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경영과 생산의 모든 지표들은 매년 하향곡선

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경영지표를 기업 생명주기법에 대입하면 성장기와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시황과 모든 여건은 우리에게 후호적이거나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주는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건조하는 선박의 수주는 영업이익률이 Zero에서 적게는 -15% 수준입니다. 단가계약품목의 경우 -10%에 가까운 단가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경쟁 입찰품목도 유사선종대비 -10% 수준의 입찰가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으며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위대한 선보인이기 때문입니다. 망망대해 바다 속에서 보석을 캐낸 불굴의 의지와 저력을 가지고 있는 선보가족이기에 여러분의 힘으로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서서 새 역사를 하나 둘 써나가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다시 우뚝 일어서기 위해 지금까지 수없이 강요한 사항들을 요약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개인별, 사업장별 솔선수범하여 행동으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명품모듈" 생산입니다. 명품모듈은 우리 회사의 간판입니다. 명품은 전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주가 인하, 선주검사강화, 도장청간검사, 까다로운 요구조건, 무한 A/S는 우리 회사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발 앞서 닥쳐올 환경에 빠르게 대비하고 지혜와 슬기로 극복해 나가야만 명품모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명품모듈생산만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며 사업다각화의 밑거름입니다.

둘째, HSE 준수와 녹색사업장 조성입니다.

안전/보건/환경은 선주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무사안일한 생각과 부주의는 나를 잃고 사랑하는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린작업장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가꾸어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극한원가 실현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업장별 독립체산제 시행입니다. 고비용, 저효율로 인해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Loss와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간접비용을 최소화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여 설계표준화, 5대 오작발생예방으로 실패비용과 A/S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재비 절감과 적기적소에 자재조달, 공법개발로 공장회전을 증대와 함께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장별 독립체산제를 정착시켜야 경쟁력 우위에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별 독립체산제는 공동분배가 아니라 사업장별 실적을 근거로 인사사고와 성과에 반영합니다. 사업장별 혁신을 통해 +알파효과를 많이 받는 풍요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개인별, 사업장별 분발을 촉구합니다.

넷째,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규 영업 창출입니다. 사업다각화는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변화하는 정보를 사전에 예측하고 개발완료 후 시장형성까지 생각하여 개발품목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품은 판매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끝난 안타깝지만 이제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없어야 합니다. 개발검토단계부터 양산화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품목은 배제하고 개발에 착수한 품목은 반드시 개발에 성공하여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반드시 사업다각화의 밑거름을 삼을 수 있도록 무한 도전과 열정을 다해주시길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윤리경영 실천과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선보가족 구성원 모두가 청렴결백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윤리경영 SYS'를 도입하지 않아 직원을 전과자로 만든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회사 환경과 시스템의 허점으로 부정비리에 노출될 수 있으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 윤리경영 실천결의대회와 서명을 받았습시다.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상호간에 투명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윤리경영 지침을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여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해 나갑시다.

선보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와 시련의 극복이 아니라 생사의 기로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변화와 혁신에 있어 구호와 행사만 난무했고, 오늘 언급한 다섯 가지 항목도 수년째 강조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습시다. 밝아오는 갑오년 희망의 새해에는 한걸음 빨리 행동하고 정해진 것은 반드시 실천하여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건설을 위해 우렁찬 함성과 박수로 꿈과 희망의 뜻을 올리고 혁신과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갑오년의 힘찬 항해를 시작합시다. 더욱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선보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1일

SUNBO Family 총괄 대표이사 최 금식

김중수 한국은행총재 일행 우리 회사 방문



지난 12월 13일 김중수 한국은행총재 일행 50명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한국은행지역본부장 회의를 위해 부산을 방문한 김중수 한국은행총재가 중소기업총연합회 도대출 수혜기업인 우리 회사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국은행은 매년 우수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방문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선정된 것이다. 한은총재 일행과 최상식 부사장 이하 임직원 6명은 대교육장에서 우리 회사 소개와 제품 3D시연을 본 후 중소기업 서포트 지원정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고 우리 회사의 생산설비를 둘러보았다. 김중수 한국은행총재는 "기업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 혁신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가 가교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방문 일정을 마쳤다.

선보공업 부산의 미래를 이끌 '해양산업 선도기업'으로 선정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26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도기업 인증서 수여식에는 허남식 시장, 최금식 대표이사, 비롯한 선도기업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부산시는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

해 지난 2006년부터 선도기업 지원사업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자금대출 및 보증지원, 기술개발 지원,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3년 인증제로 시행되며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200억 원 이상,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 20억 원 이상 기업 중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1%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7.5% 이상인 기업이 선정된다.

우리 회사는 2007년 10대 전략사업 선도기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 해양산업선도기업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선도기업(Leading Company)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경쟁력을 갖춘 예정"이라고 밝혔다.

RUN SUNBO RUN 신년사

2014년 임원진 신년사

“열정적인 에너지로 위기를 극복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됩시다.”



부사장 | 최상식

존경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2014년 청마의 기운을 담고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갑오년 청마(靑馬)의 해를 맞이하면서 2014년은 청마의 기백으로 온 힘을 다하여 앞길을 질주하여 우리의 직장가정이 항상 역동적인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아쉬움이 큰 한 해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안일함이 그러한 아쉬움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3년 부진했던 경영지표를 가슴에 담고 2014년은 더욱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올해 역시 조선시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개인과 조직에 주어진 목표에 대해 치밀한 계획과 실천방법을 세우고 선보인의 10계명과 결의문을 직장생활의 기본으로, 대표이사님의 강요사항인 “명품모듈”생산과 HSE 준수, 녹색사업장 조성, 극한원가 실현을 통한 경쟁력강화와 사업장별 독립체산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규 영업 창출, 윤리경영 실천과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실현하여 우리 스스로 정한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100%달성하는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결코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지는 것’임을 우리 모두 되새기며 이 희망의 도전에 흔들림 없이 전진합니다. 선보가족 모두의 역량과 열정에 선보의 꿈과 희망을 싣고, 우리의 열정적인 에너지를 결집해 위기의 조선 불황을 극복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어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모두가 선보의 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인정받는 기업을 일궈 냅시다.”



부사장 | 박종렬

지난 한 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보의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선보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갑오년 찬란한 새해를 맞이하여 회사와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불황의 현실은 많은 기업들에게 위기임과 동시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평탄한 길만 걸어갈 수 없듯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생기고, 내부 구성원들의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샘솟을 것입니다. 그 의지로 우리 선보는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황의 시기에는 기업 경쟁력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강자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본분을 깨끗하게 지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져 오셨듯이, 우리 모두가 선보의 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업을 일궈 가도록 합니다.

2014년에는 우리 선보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고 각 개인의 목표 또한 달성하여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나와 동료 그리고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항상 나누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무이사 | 최홍렬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13년은 조선경기의 불황이 지속되어 선보인 모두 열정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매출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으며 전년도보다 조금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선보다 해양호선 비중이 증가하면서 생소한 제품, 고품질 요구와 많은 검사진행, 납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신 모두의 노력으로 모기업으로부터 인정받은 한 해가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4년은 조선3사의 올해 건조척수를 볼 때 전년도보다 더욱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됩니다. 모기업들도 저가수주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원가절감, 경쟁력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자재업체 또한 건조척수의 감소로 전년대비 20-30% 축소된 물량을 가지고 일감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끝없는 열정과 체계적인 교육, 왕성한 제안활동,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전사매출 2000억 달성을 이룩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나와 동료 그리고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항상 나누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공부하는 한 해가 됩시다.”



전무이사 | 진병석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선보 가족 여러분 가정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3년은 경쟁력 있는 해양, 플랜트사업장 구축 및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제품 개발에 설계부 및 개발부 전 임직원이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였으나 전사 매출성장은 전년도 대비 -7.5%, 2009년 공장가동 면적대비 매출은 -50% 수준에 그쳐 성과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보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굳은 신념과 도전정신으로 힘차게 달려온 사실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2014년 새해에는 전 설계부, 신제품 기술개발부 임직원이 첫째,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공부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합니다. 둘째,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당당한 과제를 해결하고 한발 나아가 관련 부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쾌적한 작업장 환경을 조성하여 무재해를 실현하는 사업장, 선주 신뢰를 줄 수 있는 품질경영, 고객만족 설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납기 준수를 바탕으로 신규 영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시 한번 선보가족 여러분의 가정엔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원가관리로 불황을 이겨냅시다.”



상무이사 | 공성문

존경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2014년 갑오년이 힘차게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조선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조선산업이 올해는 도약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보 “Vision 2015”의 중간 연오로써, 2015년 매출 3,0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고객과 함께 성장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명품모듈 생산을 위해 제품 경쟁력을 배가시켜야 하고, 변화를 즐기며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하며 무재해 작업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존 형태의 낡은 지붕이 무너지기 전에 새로운 지붕을 얹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의 경쟁자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여 고객을 감동시키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더욱 잘 적응하고, 더욱 민첩하며 효율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객들은 우리 선보에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업무가 안 풀릴 때는 더 힘들었던 과거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잘 살자, 행복해지자, 복받자.”라고 외칩시다. 아마도 2014년은 더 멋진 것이고, 행복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도록 선보설계가 함께 하겠습니다. 선보가족 댁내 사랑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적인 마음가짐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한 해가 됩시다.”



상무이사 | 강보영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하고자 하는 일과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황과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이겨내고,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혁신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모든 경영지표가 저조하였습니다. 특히 구평2공장은 지속적으로 A/S 비용과 실패인건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고객의 눈높이와 품질 수준이 높은 것도 있지만 우리의 눈높이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품질 눈높이를 올려 진짜 선보의 제품이 “명품모듈”이라는 말을 듣도록 “명품모듈 생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A/S가 없다면 자연히 “고객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생산성은 사전작업 준비부터 시작됩니다. 도면, 자재, 공법, 인력 계획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작업팀별, 반별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많은 교육을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장이 되도록 한발 앞서 점검하고 관리하여 출근하고 싶은 회사, 안전사고 없는 건강하고 밝은 작업장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강인함과 생동감을 상징하는 청마의 해, 2014년 올해에는 쉽없이 달려가는 말처럼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UN SUNBO RUN 신년사

2014년 임원진 신년사

“선보가족 모두가 ‘행복한 갑오년’을 희망하며...”



상무이사 | 서재욱

올해는 말띠 중에서도 청 말띠해입니다. 말은 행동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성격이 온순하지만 활달할 때 매우 활달하며 서양에서는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유니콘”이라는 전설이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보가족들도 올 한 해 청마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운을 받아 조선 불황을 헤쳐 나갈 힘과 지혜, 새로운 일에 거침없이 도전할 용기와 자신감을 얻어 회사는 지속적인 사업 영위와 성장발전을, 가정에는 행운이 가득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된 조선산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각 공장별, 부문별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고전분투하고 계신 선, 후배 동료들을 보면서 지원부서를 맡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하면 노고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을 해야 할까?’하는 많은 고민 속에 죄송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원부서가 자기 역할을 잘 해내야 전 임직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불편과 불합리했던 행정 처리에 대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전 선보가족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합리적인 제도와 규정시행, 전 가족이 동참하고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 행사 기획,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합리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전 선보가족들이 직장생활에서 삶의 활력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보가족들이 힘들게 이루어낸 성과들이 헛되게 낭비됨이 없이 관리, 운용하고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우리의 미래와 성장, 발전에 기틀이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밝고 건강하게 무재해 직장을 실현하여 직장생활이 행복한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갑오년 한 해는 우리 선보가족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직장가 가정 모두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아빠, 엄마, 아들, 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초심을 되찾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무이사 | 이규현

언제부터인가 우리 선보가 중요하게 여기던 기초질서 지키기가 실종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선보는 2014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영암공장은 작년 대비 매출이 200% 신장이 되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선보가 중요하게 여기던 기초질서 지키기가 실종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과연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영암공장은 흡연구역을 설정하여 흡연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체 금연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다시 기초질서 지키기에 역점을 두고 강력히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선보 Family 전체가 반드시 실천함으로써 선보의 튼튼한 기초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기초 위에 다시 우리의 신화를 창조하여 어떠한 외부의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선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기초질서 지키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올 한 해 우리 선보 Family의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전진합시다.”



상무이사 | 정호경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추억 속에 묻어두고 갑오년 태양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선보가족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말처럼 역동적으로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할 한 해입니다. 해양 분야의 수주 설계, 생산이 힘들고 갈수록 다른 분야도 힘들어지는 가운데 우리 선보가 더욱 성숙해지고 앞서가지 않으면 경쟁사에 도태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쟁사대비 영업, 설계, 생산, 구매, QC 등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여 확고한 선두자리로 올라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에는 물량부족으로 군산직원 모든 분들이 상당한 고통과 아픔이 따랐으며 협력업체는 물량부족으로 장기휴가 내지는 부산지원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점차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한 해의 잘못을 다시 돌아보며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전진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계획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이사 | 임영삼

선보가족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보가족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장 곳곳에서 열과 성을 다해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경영환경은 작년에 비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요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세계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유니트 수주경쟁이 치열한 만큼 명품모듈 제작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또한 HSE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HSE 의식과 실천을 강화하여 무사고·무재해 녹색사업장을 조성하고, 여러분의 참여와 지속적인 사업장 개선으로 쾌적한 직장환경을 선보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직원 상호간에도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보가족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직장생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선보가족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의미있는 해를 만들고자 앞찬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선보가족 여러분의 신년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소망

하며 금년에 계획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은 최우수 대상에 도전하는 한 해”



이사 | 이청수

사랑하는 선보 가족 여러분, 2014년의 새로운 해가 우리 모두의 희망을 담고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청마의 해이니만큼 말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기운을 받아 한 해를 힘차고 알차게 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는 매출이 평년의 70% 정도에 그쳐 매출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으나 그 외 다른 지표들이 높아 공장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영도공장은 전사를 통틀어 가장 맨파워가 좋고 단결력과 집중력이 좋은 직원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도공장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남(고객)을 배려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2014년에는 매출뿐 아니라 모든 성과지표를 초과달성해서 최우수 대상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2014년에는 우리 회사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영도공장에서는 직원들의 가족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들의 자녀와 부모, 형제에게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만이 가족이 아니라 그 개개인의 가족이 모두 선보의 가족으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발판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소통하여 가족같은 마음으로 단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정(正)의 마음가짐으로 소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사 | 최경식

선보가족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소통이 잘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 밖에 없는 길(一)에 서서 주변을 살핀다는 것(止)을 바를 정(正)이라 합니다. 모든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다시 확인하여 틀린 것을 찾아내 모든 것을 바르게 처리하여 2014년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불가능이란 시간과 노력이 좀 더 소모될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은 게으른 사람이 쓰는 회피용 단어입니다. 모른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패배 의식입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처럼 모든 일에는 반드시 방법이 있고, 최선을 다하면 틀림없이 이룰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생산을 리드하는 기술력과 막힘없는 소통으로 명품모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천마처럼 하늘을 날며 꿈을 펼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RUN SUNBO RUN 회사소식

2013년 연말 시상자 명단



- 경영대상 공장부문 최우수 | 영암공장
- 경영대상 지원부문 최우수 | 품질경영
- 경영대상 설계부문 최우수 | 설계3팀
- 경영대상 공장부문 우수 | 영도공장
- 경영대상 반생산 최우수 | 1공장 조립반
- 경영대상 반생산 우수 | 1공장 자재운영반
영암공장 배관반
- 모범상 | 기술영업부 박원석 부장, 기술연구소 최재호 차장, 1공장 장세철 팀장, 3공장 장기봉 대리, 구평1공장 백승모 차장, 구평2공장 조영화 대리, 군산공장 서창현 사원

- 우수상 | 경영지원 김숙정 사원, 자재조달 김동관 대리, 조재현 사원, 품질 김은식 사원, 사업기획 장철민 대리, 전산팀 이종필 과장, 설계 1팀 이육희 과장, 설계2팀 김재형 계장, 설계3팀 고중현 사원, 설계4팀 이현우 대리, 설계5팀 천병철 사원, 설계6팀 정혜진 사원, 해양설계 김도훈 대리, 기술연구소 이태훈 과장, 1공장 박수빈 사원, 1공장 이영근 주임, 1공장 김형원 주임, 1공장 이창호 팀장, 1공장 김동섭 기원, 2공장 한진우 대리, 2공장 전철민 선임팀장, 2공장 김충민 팀장, 3공장 박재용 선임팀장, 3공장 이도희 주임, 구평1공장 정현우 대리, 구평1공장 최영대 과장, 구평1공장 박종웅 사원, 구평1공장 김명환 사원, 구평2공장 이현준 대리, 구평2공장 박관호 팀장, 영도공장 박현일 대리, 영도공장 성장훈 대리, 영암공장 허영군 대리, 영암공장 황창하 주임, 영암공장 김희희 팀장, 군산공장 자야랏
- 사외상 | 총무안전 전만석 계장, 설계6팀 오창배 대리

- 우수협력사 | 1공장 삼진공업, 2공장 정수ENG, 구평 2공장 태성산업, 영도공장 산호기업, 군산공장 백상 ENG
- 협력사 우수상 | 부경공업 지창대 사원, 삼진공업 구태현 사원, 신용공업 김정실 사원, 가람 F.S 이경희 참모, 신일 ENG 한충민 사원, 정수 ENG 이정민 팀장, 명진 ENG 정지훈 사원, 박두환 기사, 태성산업 권태식 반장, 태성산업 오상호 반장, YJ산업 김충복 조장, 하림테크 이태수 사원, 산호기업 이경욱 과장, 산호기업 강동우 대리, 금천산업 안성현 사원, 오성 ENG 김대봉 반장, 오성ENG 김재현 반장, 오성 ENG 엄재성 대리, 노규한 기사, 박성주 기사, 태연산업 서정호 사원, 태연산업 박상부 사원, 백상 ENG 김명진 사원

SUNBO NEWS 선보뉴스



선보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실시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지난 12월 14일 에너지 빈곤층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최근 기관 및 기업, 단체 등의 후원이 줄어드는 실정에서 우리 회사는 소외계층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최금식 대표이사를 필두로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부산 사하구 감천2동 일대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에 연탄 1500장을 직접 전달하였다. 앞서 우리 회사는 기부금 5백만 원(연탄 1만장)을 연탄은행에 기부하였고, 빵과 우유 등 간식을 감천 2동 경로원에 기부하였다. 아침 9시경 부산연탄은행 감천동 창고에 집결하여 연탄나눔

준비와 기념촬영을 진행한 후 지계를 이용하여 총 15가구에 연탄 1500장을 전달하였다. 이날 최금식 대표이사는 “토요일이라 근무가 없는 직원들도 자진해 나와서 고생이 많다”며 위험한 지대이다 보니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오후 1시 일정이 마무리 될때까지 직접 지계를 메고 연탄을 나르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탄을 배달한 한 가정의 할머니는 ‘연탄을 나눠주는 분들께 늘 감사하다’고 말하며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언 땅에 미끄러질 것을 염려하여 모래를 직접 뿌려주기도 하여 훈훈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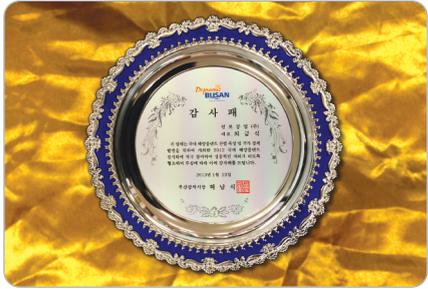
한 해를 봉사로 마무리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연탄나눔행사는 매년 꾸준히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2013년 수상 및 인증



2013년, 우리 모두 어려운 경기 속에도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 그 노력은 각종 인증과 수상 등으로 그 결실을 이루었다.

01 '제1회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부산광역시로부터 감사패 수여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23일 허남식 부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2012년 11월에 열린 '제1회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이바지 한데 대한 감사의 의미를 우리 회사에 전하기 위함이다. 우리 회사는 '제1회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에 참가하여 수많은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을 가지며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02 삼성중공업 Q-MARK '골드'등급 인증



우리 회사는 성조희(삼성중공업 협력사 모임) 정기총회에서 삼성중공업 품질 Q-MARK '골드' 등급을 인증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품질개선을 위해 많은 활동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Q-MARK 인증'과 '품질실명제'이다. 이 중 품질 실명제는 삼성중공업 내부 직원들의 품질 향상 활동이며 'Q-MARK 인증'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 수준과 기자재 수준을 평가하여 협력사에 품질 인증을 하는 활동이다.

우리 회사는 작년까지 '골드'등급을 유지하였으며 금번 사내 품질 향상 활동과 라인 QC 정착 등으로 금번 또 한 번의 '골드'등급을 인증 받았다.

이번 'Q-MARK' 획득으로 우리 회사는 품질 검사에 대하여 무검사 확대와 검사 완화, 대금 지불에 있어서는 지불 시스템 개선(현금 결제 확대), 물량 부분에서는 물량 확대 및 우선 배분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03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 가족회사 인증서" 수여



우리 회사는 지난 2월 6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 LINC사업단이 주관하여 코모도 호텔에서 진행된 '제2회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가족회사 워크숍'에서 "산학협력가족회사 인증서"를 수여했다. 우리 회사는 평소 한국해양대학교와 기술협력 및 워크숍과 행사에 필요한 장소 등을 지원 받아 왔으며 이번 인증서를 통해 더욱 돈독한 관계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04 최금식 대표이사 부산시 가능경기대회 기술위원장 위촉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는 지난 3월 25일,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부산광역시 가능경기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광역시 이승묵 지역본부장은 이례적으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최금식 대표이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05 현삼회 영암군민장학기금 기탁



지난 4월 17일, 현삼회는 (재)영암군민장학회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현삼회는 현대삼호중공업협의회로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가 활동중이다. 우리 회사는 영암테크노폴리스협의회와 영암사랑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지난 2012년, 2009년에도 영암군민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자선 활동과 지역경제 발전에 관심과 후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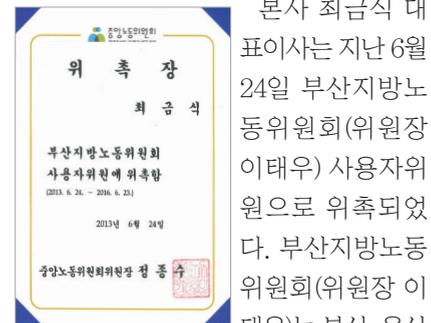


06 ASME Code 인증서 발급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28일, 29일 양일간 다대2공장에서 ASME STAMP 취득을 위해 실사를 받았으며 심사에 통과하여 2월 28일 인증 확증을 받았으며, 4달 뒤인 6월 28일 인증서를 받았다. 본사공장에 이어 금번 다대 2공장에서 취득한 ASME STAMP는 PRESSURE VESSEL 제작인 증인 "U" STAMP와 POWER BOILER & PIPING를 제작 할 수 있는 인증인 "S" 인증이며 우리 회사는 금번 인증을 통해 향후 해양 플랜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07 최금식 대표이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본사 최금식 대표이사는 지난 6월 2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태우)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태우)는 부산, 울산 지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6년 6월 23일까지 3년간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최금식 대표이사는 부산, 울산 지역 사업장의 노사관계 안정과 합리적 분쟁 조정, 심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08 최금식 대표이사 "안전문화운동추진 사하구협의회 공동위원장" 위촉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는 8월 29일 구청 상황실에서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를 "안전문화 운동 추진 사하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정부의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정 과제로서 출범한 '안전문

화운동 추진 사하구협의회'는 최금식 대표를 필두로 조성환 사하경찰서장 등 민간 단체장 2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사회 각 분야의 안전 불감증 해소와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운동에 나설 계획이며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활동을 벌일 것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Table listing birthdays for Daedae (다대공장) and Gupyeong (구평공장) divisions, including names and ages.

영도공장

영도공장 권운현 (1.02)

입사기념일

Table listing hire dates for Daedae (다대공장) and Gupyeong (구평공장) divisions.

구평공장

구평공장 정원교 (1.03)

2013년 주요 행사 및 뉴스

* 1월: ASME 취득 심사 완료로 클라이언트의 조건에 부합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28일, 29일 양일간 ASME의 자격인증을 위해 취득 심사를 거치고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ASME는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의 약자로 미국 기계기술자협회를 지칭하며 기계분야에 관한 규정과 인증을 총괄하는 세계적인 기관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다. ASME Code의 요건에 따라 기자재를 설계, 제작, 설치하고 Authorized Inspection Agency(공인검사기관)의 소정의 검사를 받은 후 ASME Code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였다는 표시로서 ASME의 Symbol Stamp를 제품에 각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자재가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게 된다.

* 2월: SRP - UF package 성공적 제작



우리 회사는 지난해 2월 23일, CLOV 비올리아를 클라이언트로 하는 UF package를 성공적으로 납품 하였다. 2012년 8월부터 시작된 UF package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영도공장에서 선각을, 구평1공장에서 의장작업이 진행되었으며, UF package는 규모와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대외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고, 완료 후 아프리카의 앙골라 현지로 무사히 납품이 되었다.

* 3월: Sunbo Family 경영아카데미 - 전략경영과정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전략경영과정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8~9일)는 2, 3년차 사원들을 대상으로 화전단지에서 있는 부산시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진행되었으며 2차(15~16일)는 임원 및 팀장급을 대상으로 양산의 세정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되어 참가한 선보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5월: 2013 부산하프마라톤대회 참가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지난해 5월 19일 국제신문이 주최하고 부산 육상경기연맹과 부산사회체육센터, 부산마라톤연합회가 주관하는 "2013 부산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푸르른 5월의 강변을 달렸다.

최상식 부사장은 비록 마라톤은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지원부 직원들과 함께 손수 수육, 김치, 두부등의 음식을 준비해서 코스를 완주한 우리 회사 참가자들을 응원하였다.

참여한 임직원들과 가족들은 인터뷰를 통해 "열심히 달리고 나니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스트레스도 풀렸다.", "묵묵히 행사준비로 수고한 봉사자들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직접 응원 나와 주신 최상식 부사장님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 6월, 9월: SHELL FLNG BONO Project 진행



우리 회사는 SHELL을 선주로 하고 BONO ARTES를 클라이언트로 하는 BONO Project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구평 1공장에서 제작된 후 2013년 6월 18일에 Neut+Regen을 납품하였고 9월 4일에 MBP+ACP를 납품하였다.

* 7월: 제 27주년 창립 기념일 행사 열려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1일 본사의 옥상 교육장에서 제 27주년 창립 기념일 행사를 열었다.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우수사원 포

상, 대회 특별상 포상에 이어 최금식 대표이사의 창립기념사 및 강평이 있었으며 10대 중점 추진사항 낭독, 기념케의 절단식으로 마무리 되었다.

또한, 최금식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5가지 중점 사항에 대해 역설 하시며 세부 사항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셨다.

- 첫째, '명품모dul' 생산
- 둘째, '고객만족 극대화
- 셋째, '녹색사업장조성'과 'HSE 준수'
- 넷째, '초 원가 실현'과 '낭비제거'
- 다섯째, '기술개발'과 '사업다각화'

* 8월: 쾌적한 환경으로 업무 능률을 올린다. 구평 1공장 사무동 신축 완공



지난 8월 2일 구평1공장은 사무동을 신축 이전 하였다. 우리 회사는 조선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여 기존 건물은 헐고 새로운 사무동을 신축을 하였으며, 공사는 4월부터 시작하여 8월에 완공하였다.

* 10월: 2013년 선보가족 하반기 그린 등반대회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10월 19일 금정산에서 '2013년 하반기 선보가족 그린등반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등반대회는 자연 정화활동과 더불어 산행을 함께 함으로써 목표달성을 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와 단합심을 키우고자 마련되었다. 약 300여 명의 임직원들과 가족이 참가하여 각 공장별 추첨으로 5개조로 나누어 5개의 코스로 출발하여 깊어가는 금정산 고담봉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였다.

* 11월: 2013년 신입사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지난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경주 코오롱

호텔에서 우리 회사 신입사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사원은 입사 기간 1년 미만인 사원 26명과 1년 이내에 입사 예정자 11명인 총 37명으로, 이번 교육은 신입사원들이 업무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여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 11월: SHELL FLNG MRT Project 성공적 제작



우리 회사는 SHELL을 선주로 하는 MRT를 성공적으로 납품하였다. 2013년 3월 15일에 시작된 SHELL FLNG MRT Project는 우리 회사 구평1공장에서 제작되어 11월 20일에 삼성 YARD에 납품되었다. 8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우리 회사는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 12월: 2014년 전사 사업계획 발표회 개최



우리 회사는 임직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7일 '2014년 전사 사업계획 발표회'를 가졌다. 2013년 실적 및 2014년 계획 요약 보고를 시작으로 전사 주요 KPI 지표 현황 보고와 조선 및 플랜트 업계의 현황 보고를 마친 후 기술영업, 설계, 자재, 품질, 경영지원, 사업기획실, 기술연구소 등 지원부문 사업실적 및 계획을 발표하였다. 18개 측정지표로 분류한 실적 요약에서는 100%이상을 달성한 연구개발건수 항목 1개와 매출액(90%), 검사 합격(99.1%), 제품 완성도(98.9%) 등 총 6개 항목에서 90% 이상의 달성율을 보였다.

최금식 대표이사의 강평을 듣는 것으로 '2014년 전사 사업계획 발표회'가 마무리 되었다. 최금식 대표이사의 강평은 다음과 같다.

1. 전 직원의 사업계획 공유
2. 직원 교육시간 증대
3. 생산목표 재편성
4. 전산 개발 요청의 필요성
5. LINE QC, 안전생활화

RUN SUNBO RUN 추천여행지

올해도 다시 가보고픈 추천여행지



지난 한 해 선보가족 사보 <SUNBO FAMILY>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다녀올 수 있는 다양한 여행지와 볼거리들이 소개되었다.

*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도심 속의 자연, 장산산림욕장에서 봄날의 햇살을 만끽하자



장산산림욕장은 부산의 명산인 장산이 내세울만한 모든 비경을 포함하고 있는 알짜배기 코스이다. 부산의 하나뿐인 폭포라는 양운폭포와 부산 해운대구의 가장 오래된 고찰 폭포사, 그리고 부산에선 흔하지 않는 물놀이가 가능한 계곡까지 이 모든 걸 장산산림욕장은 다 가지고 있다.

* 이야기가 있는 환상의 섬으로 떠나는 남해 여행-1



소매물도(등대섬)=한산면 매죽리에 속한 대매물도, 소매물도, 등대도 이 3개의 섬을 통틀어 매물도라 한다. 최고점은 섬 중앙에 솟아 있는 장군봉(127m)이다. 이곳에 올라서면 소매물도 등대섬, 선유도, 가익도, 욱지도, 사랑도, 거제도 등 한려수도의 그림 같은 섬들은 물론 날씨가 좋으면 저 멀리 대마도까지 조망할 수 있는 행운을 얻을 수 있다. 장군봉 아래편 숲에는 산신제를 지냈던 재단이 있다. 근해에서는 가자미, 도미 등이 잡히며 자연산 김, 미역, 조개류 등이 채취된다. 정기여객선이 매일 운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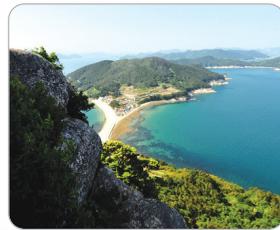
* 이야기가 있는 환상의 섬으로 떠나는 남해 여행-2



장사도=섬 형태가 뱀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장사도는 면적 0.215km²에 북서~남동 길이 1.7km, 평균 너비가 200m에 불과한 작

은 섬이다. 인구는 4명이 살고 있다. 부근에는 죽도, 대덕도, 소덕도, 가왕도 등이 있다. 해안에는 해식애가 발달했고 기후가 온화해 난대림이 무성하다. 80%가 동백나무가 차지한다. 장사도로 가려면 통영, 거제지역 유람선을 이용하면 된다.

* 이야기가 있는 환상의 섬으로 떠나는 남해 여행-3



비진도=모래가 적어 백사장인 드문 통영 바다에서 비진도는 이름 그대로 귀한 진주만큼이나 보배로운 섬이다. 내항과 외항 두개의 섬으로 이뤄진 비진도는 두 섬 사이 모래톱이 형성된 8자 모양의 섬이다. 비진도 해수욕장은 양쪽에 큰 바다를 끼고 있어 한쪽 바다만 바라보고 들어서 있는 다른 해수욕장들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서쪽을 바라보는 해수욕장은 모래밭이고 동쪽 해수욕장은 동글동글한 몽돌밭이다. 이러한 섬 생김새 덕에 일출과 일몰을 한꺼번에 만끽할 수 있다. 정기여객선이 매일 운항한다.

* 수승대 여름 계곡에서 펼쳐지는 연극의 향연 속으로



경남 거창군 위천면에 위치한 수승대야영장은 여름이면 인기가 특히 많은 야영장이다. 수승대는 풍광이 뛰어난 명승유적지다. 덕유산 줄기가 북동으로 벌려놓은 골짜기가 무주구천동이라면, 남동으로 흘러서 그 활달하면서도 그윽한 운치가 풍기는 곳이며 화강암 암반과 사계절 풍부한 수량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 바로 수승대 일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여름 피서철마다 구연서원을 비롯, 수승대 주변 곳곳에서 여러 나라의 연극단들이 참가하는 '자연 속의 연극

축제'인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리는 문화의 한마당이기도 하다.

* 부산 제대로 알기, 먹자 투어와 시티투어



부산의 대표 먹거리가 모여 있는 자갈치와 남포동 일대는 당일치기 코스로 손색없다. BIFF광장 씨앗호떡과 먹자골목의 비빔당면, 강동시장의 유부주머니와 어묵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고소한 생선구이와 쫄깃한 냉채족발도 빼놓을 수 없다. 부산의 유명 관광지를 편하게 둘러보려면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해보자. 해운대방향과 태종대방향으로 이동하는 순환형코스와 역사문화탐방코스, 해동용궁사코스, 을숙도 자연생태코스, 야경코스로 짜여져 있는 테마형코스 중에서 골라 타면 된다. 순환형은 현장판매, 테마형은 예약필수로 잔여석에 한해 현장 구매 가능하다. 부산역광장 아리랑관광호텔 앞에서 출발한다.

* 가을에는 역시 산! 경남 비경 금원산 자연휴양림



거창군에 위치한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유안청 계곡을 끼고 있어 시원한 폭포와 소 감상이 가능하다. 금원산 내 지재미골과 가섭암지 마에삼존불상, 우리나라에서 단일 바위로

는 제일 큰 바위인 문바위, 유안청폭포와 자운폭포, 선녀담이 주요 관광지다.

근근에 위치한 수승대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다. 시외버스를 기준으로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면 거창시외버스터미널까지 2시간40분가량이 소요된다.

RUN SUNBO RUN 추천 책, 블로그

최홍렬 전무가 추천한 2013년의 좋은 책, 유용한 정보

* 봄날에 떠나는 '노란버프의 하이브리드 자전거여행'

http://blog.naver.com/remittkim

주말을 이용하여 자전거여행을 떠나보자. 몸도 마음도 가볍게 건강한 봄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노란버프의 하이브리드 자전거여행'은 자전거 매니아뿐 아니라 초보자들도 참고하기 좋은 자전거여행 안내 블로그이다. 이미 개설한 지 7년을 넘긴 인기 블로그다. 블로그는 <행복한 뉴스>, <자전거와 여행>, <여행과 음식>, <자전거 안전 교육>, <박물관서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전거로 여행하기 좋은 곳 소개뿐 아니라 각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도 안내하고 있다. 자전거 매니아라면 자전거로 전국 일주 계획을 세우는 데도 참고할 자료도 풍부하다.



* 건강한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 '건강천사' 국민건강보험 공식 블로그로 건강을 지키자

http://blog.daum.net/nhicblog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모두의 화두이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건강정보를 접하지만 막상 나에게 딱 필요한 신뢰할만한 건강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 '건강천사'는 국민건강보험이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이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가득하다. 지난해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우수블로그로 선정되기도 한 '건강천사'는 특히 북부, 관절, 호흡기, 당뇨, 피부관리, 눈, 귀, 여성건강, 남성건강, 어린이건강, 노인건강 등 카테고리별 잘 분류되어 있어 맞춤형 건강 정보를 찾기에 안성맞춤이다.

* 100세 살아가는 힘



시바타 도요는 올해 103세 할머니이다(1911년 생). 자신의 장례비용으로 모아둔 100만 엔을 털어 시집 '약해지지 마를 출판하여 독자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작가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면서도 동시에 삶에 대한 열정으로 일상을 꾸리는, 바르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온몸으로 가르쳐준다. 시바타 도요는 일상의 소중함, 따뜻한 추억뿐 아니라 그나이이기에 건넬 수 있는 조용한 충고와 지혜도 깨내놓는다.

"인생이란 늘 지금부터야 / 그리고 아침은 반드시 찾아와 / 그러니 약해지지 마! / 난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 살아 있어서 좋았어. / 너도 약해지지 마."

2013년 칭찬 릴레이 열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선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2013년 11명의 칭찬받아 마땅한 선보의 일꾼이 칭찬 릴레이 주자로 선정됐다. 선보의 숨은 일꾼으로, 분위기 메이커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보 칭찬 릴레이 수상자를 다시 만나보자.

2월 구평2공장 생산 권태식 반장

“프로의식과 책임감은 직원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2013년 첫 칭찬주자로 선정된 구평2공장 권태식 반장은 항상 자기를 낮추고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는 겸손과 성실함을 두루 갖춘 사람이다. 2005년에 입사하여 이제는 장기근속자가 되어가는 권태식 반장은 근무하며 지치고 힘들 때 더욱더 함께 일하는 팀원들이 항상 가족적인 분위기로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준다고 그런 근무 분위기가 있는 우리 회사가 늘 감사하다고 전했다.

3월 영도공장 작업반 김진우 팀장

“훈훈한 가족같은 분위기가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자신의 역할에는 늘 최선을 다 한다는 김진우 팀장.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 지 올해로 6년째가 되는 그는, 활기차게 일하는 직원들을 보며 가족 같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우가 주어지는 멋진 우리 회사에서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고 우리 회사가 나날이 발전하여 해양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꿈을 가진 선보인이다.

4월 영암공장 노성담 반장

“영암공장, 다 같이 웃으며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4월의 칭찬주자로 선정된 영암공장 노성담 반장은 칭찬이 많이 부끄럽고 다른분에게 미안하지만 기분만은 좋다며 함박웃음을 지어보였다. 영암공장 배관팀에서 일하고 있으며 PURIFIER UNIT를 전담으로 작업하고 있는 노반장은 2006년 8월에 입사하여 벌써 8년차로 접어드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처음 입사할 때보다 근무조건이 많이 좋아

졌고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든든한 내 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우리 회사에 대한 마음을 내비쳤다.

5월 대대1공장 계장반 장형구 팀장

“불경기에도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자랑이자 칭찬입니다!”



2002년 1월에 입사하여 올해 12년차가 된 장형구 팀장.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 번도 다른 일을 하거나 회사를 옮긴 적이 없는 선보맨이다. 젊은 시절을 우리 회사와 함께 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는 짧지 않은 시간을 우리 회사와 동행하며 만남과 이별도 있었지만 유독 우리 선보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많은 동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 역시 자부심과 애사심으로 협동하고 팀을 이끌어왔다고 한다.

6월 대대2공장 생산관리팀 배승용 대리

“오늘의 칭찬으로 더 나은 선보인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출하준비반에는 배승용 대리의 목소리가 찌렁찌렁하다. 출하를 위한 마무리작업이니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독려인 셈이다. 그런 자신을 칭찬주자로 뽑아준 것은 동료들이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라고. 특히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주는 데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작은 일에도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든든해 보였다.

7월 대대3공장 김승우 팀장

“우리 회사에 몸담고 있다는 것만으로 저의 자랑이자 칭찬입니다!”



스트레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우 팀장은 근무에 있어서 늘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2001년 실습생으로 들어와 13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고. 칭찬이 부끄럽고 그래서 인터뷰가 떨린다며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늘 가족적인 분위기의 사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최금식 대표님과 이하 모든 선보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8월 구평2공장 김영호 조장

“서로를 생각하며 배려하고 발전해 나가는 선보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관조립을 담당하는 김영호 조장은 일을 하며 개인보다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일을 해야 발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개인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팀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조금이나마 노력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회사만큼 든든한 기업이 잘 없다며 한결같은 회사, 앞으로 더욱 큰 기업이 되는 선보가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9월 영도공장 김대봉 반장

“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태도가 아닌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곧 회사의 성과로 이어지고, 제품이 곧 제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자신감 있는 소리를 내는 김대봉 반장은 항상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작업에 임한다. 함께 하는 18명의 팀원들이 어느 해보다 폭염이 기승이던 이번 여름에도 열심히 따라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작업자들이 젊은 사람들 못지 않게 열의를 가지고 일해 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10월 영암공장 최승철 반장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지도록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목포 영암공장 사상용접팀에서 용접을 담당하고 있는 최승철 반장.



10월의 칭찬바통을 이어 받은 그는 ‘칭찬 주자’라는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항상 모든 일이 내 일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가끔 예기치 못한 업무차질에도 모두 협조하여 위기를 넘기고 공장을 돌리는 것을 보며 느끼는 것이 많았다는 그는 회사가 잘 되어야 조직원인 개인도 행복할 수 있다며 회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1월 대대1공장 계장반 김형원 주임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선보인이 되겠습니다!”



입사한 지 5년이 넘었지만 같이 근무하는 팀원 중 가장 입사가 늦은 막내라고 한다. 그럼에도 어린 팀원들이 형으로 대우해 주고 업무협조도 잘 되어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대신해서 칭찬주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칭찬을 다른 팀원들에게 돌리며 고마움을 전했다.

12월 대대2공장 생산관리부 권영식 대리

“늘 한결같은 마음가짐으로 발전하는 선보인이 되겠습니다!”



충북 청주가 고향인 권영식 대리는 조선 관련 일을 시작하고 부산에 내려와 유니트에 관심을 갖게 되어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주로 탱크탑 유니트, 엔진 주변 유니트의 생산관리와 공장 일정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을때도 그것을 잘 극복해 납기일을 넘기지 않고 제 날짜에 납품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만큼 대대2공장이 협동이 잘 된다고. 앞으로 대대2공장이 소형해양유니트 분야에 특수화되어 그 분야를 전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는 우리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